

< 2024년 교회표어 >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요일 4:16)

양 날개로 비상하라!

- 사도신경

- 찬 송 559장

1.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잇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 기 도

- 성경본문 마태복음 18장 20절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 삶 나누기

나의 신앙과 일상의 모습에서 변화되었으면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함께 나눠봅시다.

모든 이의 열망, 변화

모든 성도들 안에는 '변화되고 싶다!'는 공통된 열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영적으로 더 자유해지고 싶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는 다른 나의 모습입니다. 변화를 열망하는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신앙이 정체된 것 같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결심이 일상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때로 신앙의 흥미를 잃거나 복음의 능력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변화에 대한 열망과 말씀에 대한 결심을 어떻게 꾸준히 이어가며 성장해갈 수 있을까요?

변화의 자리는 인격적, 전인적 만남의 자리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과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을 가지셨습니다. 낮에는 많은 군중들을 대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밤에는 택한 제자들과 더 깊은 교제와 돌봄을 가지심으로써 제자들의 열망을 변화된 생활로 이끌어내셨습니다.

예수님 목양사역의 진정한 결과인 제자들의 변화는 다수의 군중에게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전인적 관계를 나눈 제자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베드로, 바울, 니고데모, 삭개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등 인생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모두가 예수님과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는 항상 작은 만남에서, 눈과 눈을 마주치며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성도의 사귄

다수의 군중이 모인 대그룹 예배에서의 은혜 고백은 꾸준한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꼭 차게 느껴져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실제로 살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그룹 예배로만은 부족합니다. 영적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성령 안에서 성도간의 인격적이고 전인적인 만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 세 사람이 모인 곳”(소그룹)에 나 자신을 밀어 넣어, 성도들 서로가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나고, 말씀을 새기고, 자신의 모습을 오픈하고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곳에서 진정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변화의 장(場), 소그룹

신학자 본회퍼는 “그리스도는 성도의 사귄에서 실제로 체험된다”고 말합니다. 성도의 사귄, 성도의 교제, 성도가 소그룹으로 만나 말씀을 매개로 교제할 때, 우리는 성도의 교제 속에서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속에서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변화되고 싶다면 소그룹(구역, 목장)을 찾아가야 합니다. 소그룹(구역, 목장)에는 구역원/목원들의 외로움을 들어주고, 인생에 대해 공감해주면서 말씀으로 자라도록 안내해줄 구역장/목자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은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위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론

성경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133:1),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이같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6:2),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10:24)라는 말씀들로 성도들이 대그룹 예배 뿐 아니라 소그룹 모임으로 신앙의 아름다운 변화를 맛보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비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양 날개로 창공을 비상합니다. 독수리인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변화되고자 한다면, 소그룹 모임에 자신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 비상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1. 모든 성도들이 가진 공통적인 열망은 무엇인가요?
2. 변화를 누리기 위해 소그룹에 참여하는 내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 오늘 공과에서 바른 교회상(象)에 대해 도전받거나 은혜가 된 것이 있으면 나눠주세요.
4. 그 외 나눔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로 마무리합니다.